

회 사 소 개

2020. 7. 13 .

펠콘 J 파트너스 주식회사

1. 기업체 개요

- 업체명 : 펄콘J파트너스 주식회사
(Falcon J Partners Co., Ltd.)
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-15 장학빌딩 8층
- 납입자본금 : 25억원 - 설립(예정)일 : 2020. 6. 1
- 대표이사 : 정만희
- 종업원수 : 5명(2020년도)

<대표이사 정만희>

- 생년월일 : 1962. 11. 13
- 학 력 : 1988. 2 충남대 경영학과 졸업
2005. 9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
- 경 력 : 1988. 1 신용보증기금 입사
-
1988. 8 신보창업투자 입사
-
1995. 3 SK증권 IPO팀장(기업공개, 코스닥 등록)
-
1997. 1 우리기술투자(주) 입사, 설립기획
2000. 5 우리기술투자(주) 코스닥시장 상장
2005. 1 우리기술투자(주) 대표이사 취임
-
2019. 3 우리기술투자(주) 대표이사 임기종료
-
2020. 3 우리기술투자(주) 경영고문

2. 회사의 Vision, Identity

가. 비전, 목표

- : 건전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구축에 기여
- : 벤처업계의 필요한 동반자
- : VC업계 펄콘의 위상정립(투자, 수익 및 성장모델 제시)
- : 아름다운 회사(함께하는 모두의 기쁨)

나. Identity

- : 벤처투자 순환구조 상 마무리(정리)와 시작을 연결하는
 - 세컨더리(구주), 정리 및 관리전문 VC
 - 마무리, 초기 전문 VC

3. 성장, 운영 전략

가. 국내 VC업계 동향 및 사업기회

(1) 최근 동향

- : 2019. 12월 말 현재
 - 등록 창업투자회 : 149개사
 - 운영 중인 조합 수 및 금액 : 920개, 27조 3,358억원
 - 투자기업 수 및 투자잔액 : 4,657개사, 12조 1,038억원
- : 최근 6년(2014 - 2019)간
 - 연 평균 투자 금액 : 2조 6,597억원
 - 연 평균 회수 금액 : 1조 1,554억원
 - (상장, M&A, 장외매각, 기타 등 포함)

(2) 국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업계의 어려움

- : 장기보유 투자 포트폴리오 정리 필요

- 조합의 해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대각이 어려운 투자자산
- 회수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고유계정 투자자산
- 업계 내 조합의 확대 결성에 의한 해당 투자자산의 누적적 증대

: 심사 및 사후관리 인력의 절대적 부족

- 전문심사인력 부족 : 창투사별 조합결성으로 전문 심사인력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신규 인력양성의 기회 부족.
- 사후관리 등 투자 후 관리업무에 대한 회피와 관리 노하우 부족과 축적의 어려움.

(3) 국내 벤처업계의 진입과 사업기회 접근(필요성)

: 세컨더리(구주) 전문 펀드결성 및 운용

- 창투사 장기보유 또는 단기적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자산 대상
- 투자재원의 용도 상 진정한 의미의 세컨더리 펀드
- 장기 미회수 자산의 적체로 인한 정부의 창업지원 재원의 건전화를 방지하고 선순환구조 마련
- 중소 벤처캐피탈의 투자자산 회수지원으로 신규 자원조달과 투자 기회 확보로 건전한 성장 유도

: 사후관리 등 관리업무의 전문적인 용역제공

- 투자 후 관리인력의 부족과 능력 부재 창투사의 수요
- 업계에서 전문 용역화의 수용으로 보편화 가능
- 풍부한 경험인력의 인프라 (50대 이상의 일선 은퇴 인력 영입)

: 신규투자, M&A 관련 투자

- 구주매입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수요 발생
- 기업정리 단계에서 M&A관련 투자와 기술거래 연계 기회

나. 진입 및 성장전략

(1) 초기 벤처캐피탈 시장진입 방안

: 목표시장 설정 - 구주전문 VC

- 오랜 경험에 의한 통찰력과 직관적인 판단력 필요
- 벤처캐피탈 업계의 네트워크와 정보력 구축
- 펀드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공감대 형성

: 심사능력 확보

- 업계경력 20년 이상의 실무집행 직원으로 구성
- 상호 보완적 경력구성으로 소수직원의 한계점 극복
-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로 의사결정과정의 오류 최소화

: 오픈형의 유기적 조직시스템 마련

- 플랫폼구조의 진보적 조직시스템 :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
- 조직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보상시스템
- Out sourcing 및 협력기반 마련으로 내부역량 확충

(2) 부문별 추진 방안 및 향후 발전 계획

: 1차년도 내부 인력구성 계획

- 정만희(58세) : 벤처캐피탈 및 IPO업무 경력 32년
- 우흥대(55세) : 벤처캐피탈 및 벤처기업 경력 30년
- 총원 계획 : 증권, 벤처 산업경력 20년 이상 2인, 관리 1명

: Out sourcing 및 인센티브 시스템

- 회계 및 법률 부문 : 전문 법인과 업무제휴, 용역 계약
- M&A, 컨설팅 부문 : 업무 제휴에 의한 관계 구축
- 업계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 : 성과금 규정과 계약
- 조직의 개방성 확대로 외부 유능한 인력의 수시 총원

: 재원조달 방안

- 1차년도 투자재원 조달 : 구주전문 세컨더리펀드 결성
- 1호 조합 결성목표 : 300억원
- 조합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 자본금 증자 병행

: 수익확보 기회, 방안 마련

- 경험에 의한 통찰력, 선별 능력으로 경쟁적 비교우위
- 조합투자의 성공가능성 증대 : 관리보수, 성과보수 기대
- 다각적인 발굴 노력으로 단기 기획펀드 조성 및 운용

: 차별화된 전문 VC로서의 위상 구축

- VC업계 내에서의 GP로서의 역할 기회 마련
- 투자성과, 근무환경, 성취감 등에서 함께 하고 싶은 회사
- 시작은 작지만 그 성장의 과정과 길에는 큰 뜻이 있음을...